

[트렌드 & 스타일]

■올 가을 메이크업 트렌드

도발적 눈매 달콤한 입술

여자의 가을은 화장에서 먼저 온다. 소매가 길어지고, 옷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요즘 화장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초 화장도 그렇지만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데는 색조 화장이 빠질 수 없다. 특히 잡지나 홍보 브러셔를 통해 보는 각 브랜드의 광고는 올 가을 메이크업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브라운 색상이 유행하면 온통 브라운 메이크업만 내놓았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천연일물적인 메이크업을 벗어나 각 매장이다 개성을 살린 다양한 메이크업을 소개하고 있다. 매력적인 광고 모델을 통해 올 가을 메이크업 트렌드를 살펴보자.

■도도한 여신...헤라



이번 가을 메이크업 컨셉은 딜리셔스(Delicious), 비스킷이나 초콜릿, 카라멜, 스펀지 케이크 등 달콤한 먹거리의 향과 디자인, 컬러를 제품에 이용했다. 톤다운(tone down)된 골드나 핑크, 브라운 색상으로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피부는 유유처럼 촉백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눈매는 입체감 있게, 입술은 와인 빛의 복고풍으로 재현했다.

입체감 있는 눈매를 위해서 라인을 꼼꼼히 그려준다. 그레이, 바이올렛, 초콜릿 컬러의 아이리이너를 이용해 눈썹 사이사이를 메워가며 그려 준 후 같은 계열의 아이섀도우를 눈 두덩이와 눈 언더라인에 가볍게 발라준다. 골드나 브라운, 실버 등 핑크가 느껴지는 색도우를 덧바르면 매력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다양한 컬러로 화사하게...샤넬

결집없는 깨끗한 피부톤에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핑크나 오렌지 색상의 블러셔를 발라 자칫 칙칙해지기 쉬운 화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입술은 립글로스보다는 립스틱을 발라 성숙한 느낌을 표현했다.

눈매는 우아하게 연출했다. 일자에 가까운 눈썹은 최대한 길게 그려 우아함을 강조하고 눈 밑은 펄이 들어있는 짙은 컬러의 아이리이너로 꼼꼼히 칠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러프한 록스타...라네즈

스모키 메이크업(눈 화장을 어렵게 하면서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이 대세인 가운데 라네즈는 '글래머러스하고 파워풀한 록스타일' 메이크업을 제시했다. 강렬한 스모키 화장과 볼륨감 있는 누드톤의 입술로 화려하면서도 복고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록스타 메이크업의 핵심은 아이리이너와 아이섀도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브라운, 블루, 카키 컬러를 아이를 윗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펴발라 주고, 눈앞머리와 눈꼬리 쪽에 한 번 더 발라 눈두덩 중앙부분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한다. 아이리이너는 속눈썹 바로 윗부분에 깔끔하게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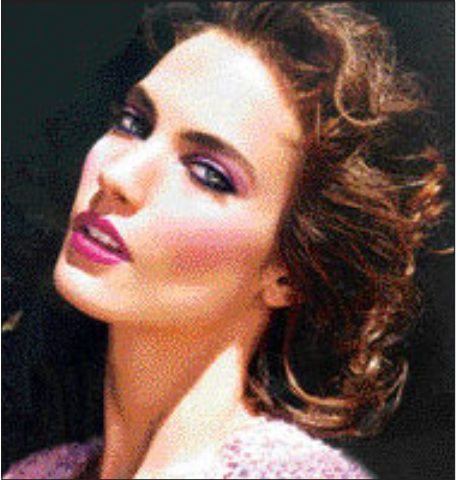
■은은하면서 성숙한 스타일...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는 성숙하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제시했다. 피부는 깨끗하고 화사하게 표현하고, 눈은 관능미를 강조한다. 라벤더, 보라 등 여성미를 최대화하는 컬러에 실버와 골드를 적절히 조합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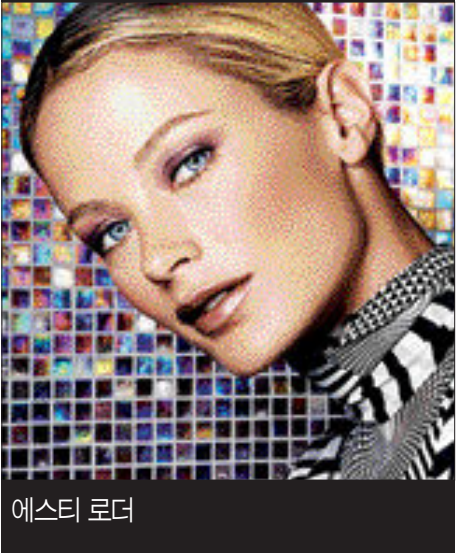
에스티 로더 관계자는 "올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스모키한 자주색으로 신비한 화장이나 플래티넘 컬러로 은은하게 반짝이는 화장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선정기자 ks@kwangju.co.kr



라네즈



샤넬



에스티 로더



헤라

화장을 전혀 안 한 '생얼'이 유행이었던 여름과 달리 이번 가을에는 눈매를 강조한 화려한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女心 녹이는 '초콜릿 화장품'

비누·로션·아이섀도·립스틱 등 다양

달콤함의 대명사 '초콜릿'이 화장품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각 브랜드에서 초콜

러운 디자인과 달콤한 향은 여성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초콜릿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아이섀도나 블러셔 등 색조 제품. 바비브라운의 '초콜릿 아이 팔레트'는 네모난 팔레트에 초콜릿 색상의 아이섀도가 들어있다. 천연 헤나(열색제)인 러시의 '카카브론'은 초콜릿의 디자인을 썩 빼닮았다. 한 개씩 조각내 사용하는 것도 초콜릿을 연상케 한다. 초콜릿을 토대로 한 먹음직

너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정색 아이리이너에 비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초콜릿의 성분과 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 오리진스의 '코코아 테라피 캠프리 나리싱 바디 버터'도 캠프리 성분은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높여준다. 달콤한 초콜릿 향이 기분까지 즐겁게 한다. 터페이스샤는 손으로 직접 만든 '스위트 초콜릿 비누'를 판매하고 있다. 저자극성 약알칼리 비누로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선정기자 k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림2지구' (Donglim 2-gu) featuring a 100-pyeong school and hospital complex.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민음공인중개사' (Minum Public Broker)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홈컨부동산' (Homeco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부동산컨설팅' (E+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목선코리아부동산컨설팅' (Mokseon Korea Real Estate Consulting)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